

전자정보의 출현으로 인한 의학사서의 역할과 의학도서관 서비스의 변화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아산의학도서관

박 정 희

A Study on the Change of Medical Librarians' Role and Library Services on the Emergence of Electronic Information

Asan Medical Library,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Seoul, Korea

Jeong-Hee Park

— ▶▷ ABSTRACT ◀◀ —

From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medical information was rapidly changed into electronic form. Such a trend brought in another radical change of purchasing pattern of medical libraries and the access pattern of the users. Within the last four or five years, many medical libraries have changed their purchasing pattern from printed to electronic form. More users are beginning to depend on websites. While this phenomenon caused the librarians to reexamine their traditional duties, the users were showered with abundance of unattested information. The Asan Medical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Ulsan has indentified the role of the medical librarian in the electronic information era and developed available services for the needs of the users. All these services are accessible on the web, being effective for the last five years. This study strived to discover users' pattern of utilizing the medical information, the frequency of users' visit,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and the need for such services, in order to find a better way of serving the medical professionals and to identify the role of the medical librarian in influx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al era.

Key Words: Medical librarians' role, Medical library services, Consortium, Flow of information

서 론

인터넷과 Web의 발달로 21세기는 고도화된 정보사회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자형태의 정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용자들은 사이버상으로 정보를 다루었다. 이용자는 의학사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접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환경으로 이용자들은 무제한적이고 무절제한 정보에 노출되어 이용자들의 연구에 위협한 요소로 작용할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의학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배포와 이용이 활발하며 최신 정보를 취급하므로 다른 학문에 비해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의학사서는

과거 인쇄매체의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이버상에서 정보가 유통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의학사서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용자에게 인쇄매체를 제공하기 위한 분류, 편목, 열람, 대출 등 사서의 역할을 공간적 제한이 없는 정보 접근, 배포를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 정보 환경에서 의학사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한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를 도출하여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연구범위는 울산대학교 아산의학도서관의 현황을 토대로 하였고, 연구방법은 정보자원의 전자화에 따른 의학사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개발한 새로운 서비스의 연간 이용건수와 의학도서관 이용건수 그리고 설문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를 이용하였다.

이론적 배경

정보의 혼돈시대라 일컬을 만큼 전자정보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종이매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었다. 한국은 2000년부터 학술잡지를 package

형태의 컨소시엄으로 구독하기 시작하였다. KESLI 통계를 보면 2000년 7개로 시작한 컨소시엄이 2009년에는 100개로 늘어났다. 이 중 의학관련 컨소시엄은 2000년 5개이었고 2009년에는 23개이다. 컨소시엄의 구독 조건은 print holding, e-only, choice가 있는데 점차로 e-only로 가고 있다.

2005년부터의 국내 의학관련 컨소시엄 수와 아산의학도서관 컨소시엄 가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많은 출판사들이 package 형태의 컨소시엄을 제시하며, e-only로 구독하도록 유도하였다. 의학분야에서 2005년 19개의 컨소시엄이 소개되었고 그 중 e-only 조건이 4개(21.05%), print holding 조건이 6개(31.68%), 프린트나 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컨소시엄 조건이 9개(47.37%)였다. 2009년에는 23개의 컨소시엄으로 늘어났고, 그 중 e-only 조건이 12개(62.17%), print holding 조건이 0개 그리고 프린트나 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컨소시엄 조건이 11개(47.83%)였다.

아산의학도서관도 출판사의 컨소시엄 정책과 비례해서 구독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2005년에 16개의 컨소시엄에 가입하였으며, 그 중 e-only 구독은 2개(12.5%)이고 print holding은 14개(87.50%)였다. 2009년에는 22개의 컨소시엄에 가입하였고, 그 중 print holding은 archive가 전혀 되지 않는 1개

표 1. 국내 의학관련 컨소시엄 수와 아산의학도서관 컨소시엄 가입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Korea	AML	Korea	AML	Korea	AML	Korea	AML	Korea	AML
NO of total	19	16	19	16	21	17	22	20	23	22
E-only	4	2	5	2	6	3	6	8	12	21
(%)	21.05	12.50	26.32	12.50	28.57	17.65	27.27	40.00	52.17	95.45
Print holding	6	14	5	14	5	14	4	12	0	1
(%)	31.58	87.50	26.32	87.50	23.81	82.35	18.18	60.00	0.00	4.55
Choice	9		9		10		12		11	
(%)	47.37		47.37		47.62		54.55		47.83	

를 제외하고 21개(95.45%)를 e-only로 전환하여 구독하였다.

이와 같이 출판사들은 e-only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의학도서관들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프린트를 포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서울에 위치하며 학술잡지 예산 \$1,000,000이상인 아산의학도서관을 포함한 대표적인 6기관의 의학도서관을 보면, 2004년에 e-only로 전환한 구독기관이 1기관, 2005년에 1기관, 2008년에 1기관, 2009년에 2기관이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립의과대학 의학도서관만이 프린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학술잡지 구독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전자정보생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Dr. Donald, Dr. Lindbert, Dr. Humphreys는 2005년에 New England Medical Journal에 의학정보의 출판 형태에 대해 기고하였는데, 논문 '2015-the future of medical libraries'에서 2015년에는 의학정보가 전자형태로만 출판될 것이며, 학술잡지의 back volumes, books, manuscripts, images도 전자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보환경은 전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networking infrastructure가 구축되었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등장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환경은 이용자가 적합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의학에 있어서는 정보의 출판 형태가 점점 e-only를 지향하고 있으며, 무제한적으로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안정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또한 물리적 공간인 의학도서관에서 사이버 공간인 web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보입수의 루트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량의 정보를 접함으로 오히려 이용자의 연구나 진료에 혼돈

을 가져오는 폐단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의학사서는 전자화로 가는 정보환경에 적합한 역할을 모색하였다.

의학사서의 역할 변화

전통적도서관에서 의학사서는 분류, 편목, 배가, 열람, 대출 등이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이용자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가치가 상승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도서관의 물리적 배경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졌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 이용을 선호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보의 접근점도 다양해졌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정보 흐름은 정보생산자가 도서관에 정보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정보를 도서관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입수하는 삼각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보시대에는 이 삼각구도가 와해되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생산자와 이용자, 도서관과 이용자, Vender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정보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유통의 흐름은 가치 있는 정보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정보환경에 이용자가 노출되어 있어 이용자의 연구에 정보가 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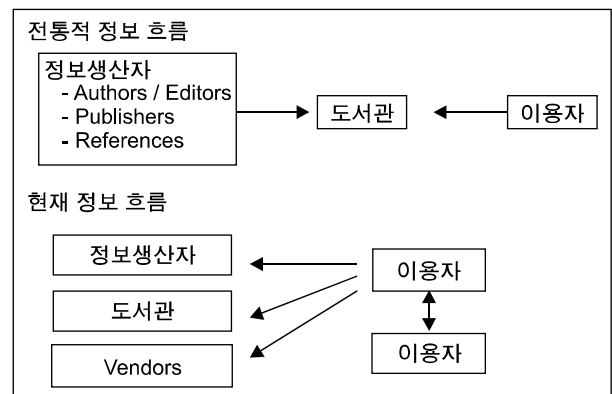


그림 1. 정보 흐름의 변화.

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의학사서들은 정보유통에 대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전통적 정보환경에서의 삼각구도가 무너지면서 정보 관련자라 할 수 있는 이용자, 경영자, 사서들은 각각 정보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용자는 전자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보입수가 빨라지면서 의학사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시, 공간의 장애가 없는 정보입수와 무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환경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환경은 정보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이용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접근이 쉬운 사이트만을 선호하므로 편식된 정보로 연구하는 문제점도 수반한다.

조직의 운영을 맡고 있는 경영진은 전자자료를 프린트 자료의 대체물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쇄매체의 감소를 사서의 업무 축소와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의 불필요성으로 연결시켜 의학도서관과 의학사서들의 역할에 대해서 축소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 측면에서 보면 사서는 전자형태의 학술잡지를 package 형태로 구독함으로써 인쇄매체를 다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보의 양을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에 노출되어 연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정보 입수에 대한 편리함으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켜야 하며, 뿐만 아니라 on-line 환경에서는 사서와 도서관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경영진에게 사서가 당면한 문제를 인지시켜 전자정보에 대한 개념을 사서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는 과제를 추가로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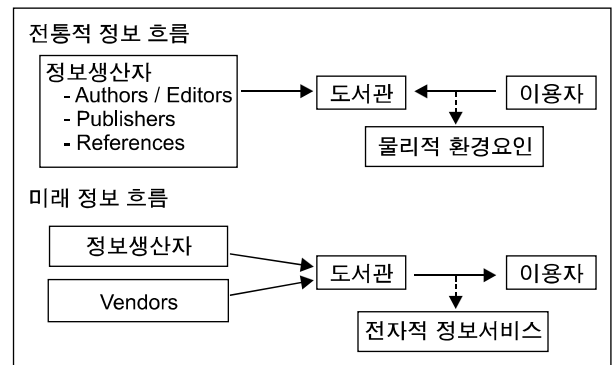


그림 2. 사서 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보 흐름.

그림 2의 미래 정보 흐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학사서는 정보 관련자들인 이용자와 경영진들의 전자정보에 대한 겹을 좁히는 역할과 동시에 대량의 전자정보 중에서 가치 있는 정보만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정보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이용자의 다각적 접근 포인트를 의학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에 도서관이 정보 접근점이 되도록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있는 전통적 도서관은 이 삼각구도가 정보환경으로 인하여 타의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정보 접근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전자정보 시대에는 이 삼각구도가 이용자의 자의적 생각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그러므로 의학사서는 Web resources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콘텐츠 관리, 동영상 교육, 학술지원, 홈페이지 관리 등 이용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는 홍보의 역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공 서비스 종류

정보생산자, 이용자, 벤더들 사이에서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용자와 경영진은 의학도

서관과 의학사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사서들은 정보 입수 루트가 다양화되면서 정보의 질이 낮아짐을 인식하게 되었고 가치 있는 정보 제공과 서비스의 다양화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아산의학도서관은 정보 유통을 주관하여 이용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1. One-stop service

이용자가 필요한 논문을 홈페이지, Fax, e-mail 등으로 신청하면 소장자료 확인, 복사, 국내/외 상호대차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거쳐 신청 논문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서관 소장자료 일 경우 12시간 내에 원문을 제공하며, 2001년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학술잡지 컨소시엄이 출시한 시점에서 시작하였는데 정보의 전자화로 이용자와의 친밀감이 줄어들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창안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이 서비스는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닌지 혹은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져 꼭 필요한 업무에 방해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정보로 인하여 이용자와 도서관과의 친밀도가 떨어져 실제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정보가 이용되지 못함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One-stop service는 그림 3에서와 같이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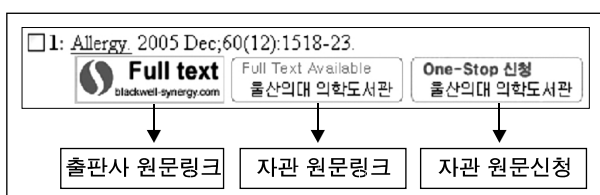


그림 3. PubMed Linkout icon.

PubMed 검색화면에서 원문 신청하도록 이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2008년부터 구독 전자학술지는 PDF로 제공하고 있다.

2. SDI service

이용자들의 관심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03년부터 의학 DB의 E-mail Alert기능을 이용하여 최근 일주일간 update된 논문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3. 주제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관심 주제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주는 서비스로서, 2004년부터 시작하였다. 이용자가 관심 주제를 검색할 경우 늘 이용하는 DB만을 검색하여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한 서비스로 주제 검색 신청 1건당 보통 10개 정도의 DB를 검색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결과는 24시간 내에 제공한다.

4. 논문작성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국내외 학회에 논문을 게재할 때 그 해당 학회지의 최신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 형식을 맞춰주는 서비스로서 2008년에 시작하였다. 이 때 Endnote를 이용하여 투고규정에 맞게 reference를 편집하고, 인용한 reference 를 검증하여 준다.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 파일을 규정에 맞춰주며, PubMed MeSH 검색을 통해 keyword를 추천, 확인해준다. 결과는 48시간 내에 제공한다.

5. 모바일 서비스

의학도서관 소장자료의 검색, 반납일 확인, 대출 예약 등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외부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6. 인용분석 서비스

Web of Science를 통해 자신의 논문을 누가, 얼마나 인용하였는지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2008년에 시작하였다. 국가별, 기관별, 과별, 저자별, 주제별 등으로 구분하여 인용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제공하며,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 또는 관심 저널이 SCI 수록저널인지 확인하여 준다.

그 외 의학관련 DB와 자관 이용 등의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VOD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제작하여 homepage 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1년에 2번 도서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개인의 단행본 구입을 위한 도서구매대행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제공 서비스 결과

의학도서관은 off-line 형태를 on-line 형태로 변환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아산의학도서관은 1997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00년 전자저널을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이버상에서 운영하였다.

이제 One-stop 서비스는 급증하는 전자정보로 이용자와 의학도서관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예견하여 실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이용건수가 늘었으나 2004년부터 점차 이용건수가 줄고 있다. 이에 아산의학도서관은 이용자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2003년 보다 최신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SDI 서비스와 2004년 주제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 논문작성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용자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도서구매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논문작성지원 서비스는 2008년 181건이었고, 2009년 1~10월은 340건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꾸준하게 늘어나리라고 예상한다.

각각의 서비스 이용건수가 처음보다 줄어드는 경향은 있으나, 매년 추가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의학도서관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2. 연도별 서비스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One-stop	19,422	44,333	45,691	42,691	35,555	28,855	26,766	22,290
SDI*			136	136	84	40	96	55
주제검색				421	466	402	285	385
논문작성 지원								181
개인도서 구입								55

*SDI 서비스는 매년 신규로 신청한 이용건수임. 2008년 출판사 통계로는 총 580건임.

표 3. 연도별 이용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직접	36,706	26,918	28,860	33,137	69,579	77,080	88,283	91,884
홈페이지	90,681	276,230	306,490	416,803	475,869	512,078	547,786	575,015
Proxy				23,144	49,278	91,415	136,478	168,055

표 4.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우 만족	20	45	52	113	163	171
만족	59	69	72	143	220	211
만족(합계)	79 (66.4%)	114 (72.6%)	124 (83.2%)	256 (82.6%)	383 (87.8%)	382 (89.4%)
보통	33 (27.7%)	42 (26.8%)	23 (15.4%)	48 (15.5%)	47 (10.8%)	45 (10.4%)
불만족	6	1	2	6	6	3
매우 불만족	1	0	0	1	0	2
불만족(합계)	7 (5.9%)	1 (0.6%)	2 (1.3%)	7 (2.3%)	6 (1.4%)	5 (1.2%)
응답자수	119	157	149	311	436	432

표 3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홈페이지 방문자가 직접 방문자보다 급증하고 있으며, 그리고 홈페이지 외부 접속자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방문자에서 2004년 직접 방문 이용자가 2005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외부 환경요인이 개선된 결과이다. 아산의학도서관이 2005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여 쾌적하여지고 공간도 2배 이상 넓어져서 정보검색실, 스타디 룸, 휴식 공간 등 공간 구성을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마련함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방문이 늘어났다. 이 결과는 도서관 공간의 기능이 이용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위의 통계에서와 같이 이용자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모든 서비스가 웹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용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학정보의 전자화에 의하여 의학도서관의 서비스를 전자화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이용자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산의학도서관은 2001년 의학정보의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알기 위하여 2003년부터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14문항 중 의학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것을 발췌하였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가지 중 선택하는 오지선다형으로 질문하였다.

2005년까지는 직접 설문을 받았고 2006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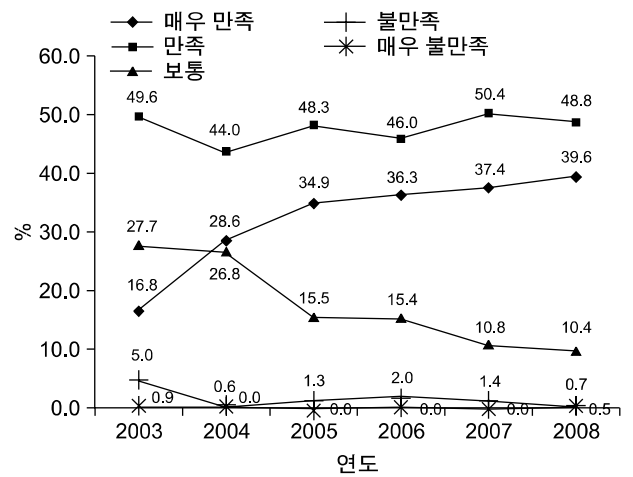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이용자 만족도(오지선다형에 대한 증·감 그래프).

웹으로 설문을 받았다. 표 4에서와 같이 2003년 직접 설문을 받았을 때 119명이 응답하였으나, 2006년 web으로 설문을 받았을 때는 2배 정도 응답자수가 증가하였다. 만족도 결과 중 만족을 보면, 2003년 66.4%이었는데 2008년에 89.4%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보통은 2003년에 27.7%에서 10.4% 그리고 불만족 또한 2003년 5.9%에서 1.2%로 감소하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이용자가 아주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고, 불만족에 비해 아주 불만족의 감소폭이 크다. 전체적으로 만족에 대한 응답이 해마다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아주 만족에 대한 응답이 만족보다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아산의학도서관의 서비스 결과에 대해 팔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 이용통계를 보면, 서비스 이용건수는 시행한 지 2~3년 후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 요인으로 이용자의 심리와 정보 입수 환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의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처음에 시작한 서비스에 대하여 호기심과 편리성이 작용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다가 서비스가 관례화됨으로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심리적 측면과 또 하나는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증가하는 정보환경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의학사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구축되면 곧 바로 또 다른 서비스를 창안해야 한다. 그래야 이용자들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전자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 다른 서비스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더 나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필요가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한 것을 의학사서가 먼저 포착하여야 한다.

아산의학도서관이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의학사서들이 전자정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학사서는 서비스를 창안하고 개발하여야 함을 아산의학도서관의 서비스 이용건수와 의학도서관 이용건수 그리고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결 론

도서관의 역할은 고대에는 보전이 목적이었고 사서는 주로 필사를 주 업무로 하였다. 중세에는 열람이 목적이 되었다. 이용자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해야 했고, 도서관은 이를 위해 안

락한 열람실, 많은 프린트 자료를 배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사서는 증가하는 정보에 대한 분류, 편목이 주업무가 되었다. 현대의 도서관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정보 접근으로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다. 정보의 전자형태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형태의 변화로 사서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용자는 의학정보를 이용할 때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의 소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록함을 뒤지고 서고에서 책을 찾고 자료를 복사하고 책을 빌리는 행위 대신 자신의 컴퓨터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해결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용자가 검증없이 떠도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이용자의 연구나 진료를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의학사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인터넷에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용자를 의학사서와의 접근으로 유도해야 한다.

칼 플라니는 '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시장경제의 재앙은 경제를 다시 사회적 통제 안에 가두어둠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방임주의의 대안으로 어필하는 이 이론은 의학도서관에도 적용된다. 의학사서는 '전자정보의 재앙은 정보를 다시 도서관의 통제 안에 가두어둠으로서만 피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통제란 결국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안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보의 출현으로 깨진 정보생산자, 도서관, 이용자의 삼각구도를 이제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다각도로 형성되어 접근되는 정보 루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해하고 편식된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차단시키는 정보의 통제가 의학사서에 주어진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편으로 아산의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고안하여, 이용자가 정보를 원할

때 외형적 도서관이나 웹 사이트가 아닌 의학사서를 떠 올리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다. 정보의 남발이라 일컫는 정보환경시대는 우리 의학사서들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 도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박일종, 정진한. 국내 전문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6; 37(2);73-95.
- 2) 안수찬. 시장을 의심하는 당신 떠나라. 플라니의 세계로. 한겨레21. 2009;753.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general/24610.html>
- 3) 안인자. 사서직 업무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05;16(1);233-46.
- 4) 최성자, 안인자. 대학도서관 리에종서비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09;20(2);167-82.
- 5) Donald A.B., Lindbert, M.D. and Betsy L. Humphreys. 2015-the future of medical libraries. N Engl J Med, 2005;352:1067-70.
- 6) Giuse, Nunzia Bettinsoli. The next challenge: where do we go from here? JAMA, 2007;95(1);1-2.
- 7) Hill, Thomas. Fear, concern, fate, and hope; survival of hospital libraries. J Med Libr Assoc, 2007;95(4); 371-3.
- 8) Kelly, Kevin. In several dozen nondescript office building around the world, thousands of hourly workers bend over table-top scanners and haul dusty books into high-tech scanning booths, They are assembling the universal library page by page.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006;May 14;44-46,64,71.
- 9) Ritchie, Ann. Future visions for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health librarianship: an Australian perspective. 2008;25(s1);103-5.
- 10) Tu, Feili.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provide health information? related virtual reference services: evidence from a survey. J Med Libr Assoc, 2007; 95(4);458-61.